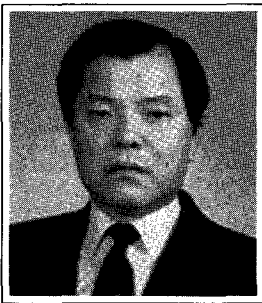


# 모든 제도는 운영자의 성실성에 기초해야

이 승 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우** 리에게 이미 너무도 친숙해진 '원자력 안전'이라는 말은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누구도 알지 못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원자력 안전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원자력 안전'이라는 표현도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62년 TRIGA Mark-II의 가동으

로 최초 원자력의 불을 지핀 이래, 우리 원자력 산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각종 품질 보증 체계의 완비, 안전 문화의 확산 및 안전 규제 제도의 보완 등이 항상 전제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원자력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처에서 원자력 관련 각 부서별로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원고를 <원자력산업>지에 기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다음에 한달여 기간 동안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된 각 부문별 활동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미비된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공통적인 화제들을 사변적으로나마 열거하고 싶다.

첫째, 어떤 제도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란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의 역사적·경제적·문화적 풍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사회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보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각종 제도와 체계가 우리에게 체질화될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어떤 제도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안전 규제 제도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의 초창기 아무런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완 및 확충을 통하여 오늘에 이른 안전 규제 제도는, 앞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다 비용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는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부분적 비교를 통하여 합리·불합리를 따지는 것은 위험한 접근법일 것이다.

어떤 제도가 30년 동안 존속해 왔다면 나름대로의 부분적인 불합리를 보완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제도가 보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회적 풍토가 이를 보완할 것이며, 사회적 풍토가 보완하지 않는다면 개인적 성실성이 이를 보완할 것이다.

넷째, 우리의 안전 규제 제도는 몇 차례의 민족의 수난(?) 직후, 원자력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후 수차례의 크고작은 보완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정부의 제도 이전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집단의 전통(유럽의 길드와 같은)은 여전히 결여된 상태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로 발전된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어깨에 실려 있는 짐은 그 무게를 더



원전 가동전 검사 장면. 우리 원자력산업의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각종 체제 및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준수가 항상 전제되어 왔다.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도는 그 운영자의 성실성에 기초한다고 본다.

선진국의 제도를 보면 부분적으로 허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많다.

비근한 예로 교육 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교육 제도가 빈번히 바뀌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문제의 근본에 제도가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심에는 간관주의나 일류 지향성이라는 개개인의 속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원자력 산업의 규모, 기술 능력 및 안전 규제 부문에서 당

당히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 중심의 모임에도 참여하게 된 것은 진정 가슴뿌듯한 일이다.

이는 원자력 가족의 피나는 노력에 기초하여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다룰 4편의 원고는 원자력 안전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글로서, 현재의 상태를 엄정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은 성실히 수행될 것이지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도 각별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